

# 무주군, 감염병 예방 강화

### 열감지기·음압텐트·특수 구급차 1대씩 추가

무주군은 지역의 질병안전망 구축을 위해 감염병 대응 장비를 확충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등 발열증상과 함께 호흡기로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 환자의 조기 관리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열감지기 1대와 음압텐트 1대를 구입했으며 긴급환자 이송을 위한 특수 구급차 1대도 추가 확충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모기 서식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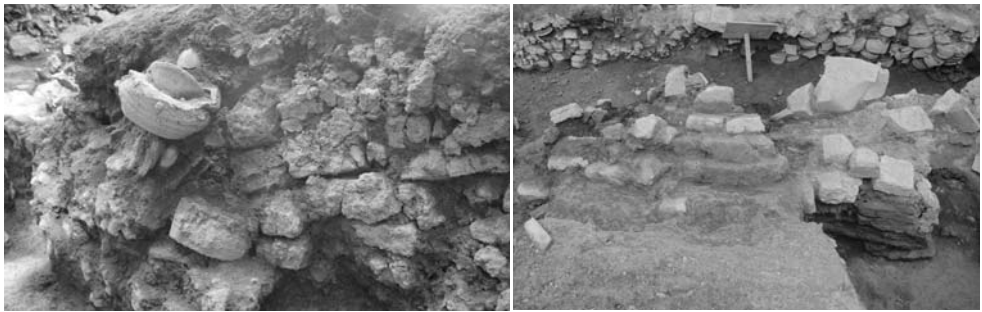
이 높은 남대천과 주요 지역에 해충 퇴치기 48대를 설치했으며, 보건 의료원을 비롯한 각 읍면 방역 팀이 취약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과 환경정비를 실시해 모기를 매개체로 한 감염병의 발생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신현희 예방의약 담당은 "건강하고 깨끗한 무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무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휴가철을 앞

두고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정보를 확인해 공유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와 음식물 끓여 먹기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감염병 의심 시 의료기관에 즉시 방문하도록 안내하는 활동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에서는 제2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과 신증후군 출혈열, 장티푸스 접종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자궁경부암 백신을 추가로 도입해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접종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성수면 도토리 중평마을 청자가마터에서 1기의 가마 확인 모습.

## 진안 도토리 중평 청자가마터 발굴조사

### 벽돌·진흙으로 만든 청자가마 1기 확인

진안군 성수면 도토리 중평마을(산 40-1번지)에 위치한 청자가마터 4차 문화재 조사에 따른 학술 자료회의가 15일 오후 3시 도토리 중평마을 조사 현장에서 열렸다.

이번 자료회의는 유적의 성격 등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문화재 위원 등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되었다. 자료회의에는 전문위원을 비롯하여 이항로 진안군수와 국

립전주박물관 이주현 관장직무대리 등 진안군과 국립전주박물관의 조사 관계자,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하였다.

진안 도토리 중평 청자가마터 4차 문화재 조사는 국립전주박물관의 자체 학술발굴조사사업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추진되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1기의 가마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3차 조사에서 확인된 가마에 이어 도토리 중평 청자가마터에

서 두 번째로 확인된 가마이다.

이번에 확인된 가마는 현재 드러난 길이가 총 21m이며, 그릇을 굽는 소성실 안쪽 벽은 돌·진흙과 갑발(죽을 때 청자에 덮는 용기)로, 바깥쪽 벽은 일부에 벽돌을 이용해 정연하게 쌓았다. 이를 통해 벽돌에서 진흙·갑발로 가마 축조재료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초기청자가마의 변화과정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학술자료로 평가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17~18일 '자연에서 나누는 가족사랑 한마음 캠프'를 운영한다.

## 덕유산국립공원, 내일 한마음 캠프 운영

### 우석대 부속유치원 환경 체험교육 실시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홍대의)는 오는 17~18일 1박2일동안 유아를 대상으로 덕유대야영장 및 구전동옛길 일원에서 '자연에서 나누는 가족사랑 한마음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지난달에는 성인층 대상으로 '등산보다 재미있는 캠핑교실'과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캠프'를 운영했다. 아울러, 이번 캠프는 유아 층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덕유산국립공원은 올해 "문화가 있는 국립공원과 '구전동 옛길 탐방로 이용 확대'로 저지대 탐방문화와 슬로우 탐방문화 정착 하기위해 성인·청소년·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세대별 기획성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 3.0의 핵심가치(개방·공유·소통·협력) 실천을 위해 덕유산국립공원과 우석대학교 부속유치원(원장 오정현)이 미래세대의 자연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준비 되었다.

한편, 덕유산국립공원 탐방시설과장 윤대원은 "이번 가족과 함께는 친환경 캠프는 자라나는 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 체험교육으로 진행되며, 앞으로도 올바른 캠핑문화 확산과 구전동 옛길을 이용한 저지대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의회 정례회 폐회

진안군의회(의장 이항기)는 15일, 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6월 8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29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22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했다. 또한, 회기 첫날 실시된 본회의에서 김남기 운영행정위원장과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항기 의장은 "곧 장마철로 접어들어 때문에 1년 농사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재해발 농작물 관리와 기상특보 단계별 대응 요령을 사전에 지도해 주길 바란다"며 "군민 여러분께서 전반기 진안군의회에 보내주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행정지원과 직원은 고산면 명석마을 양파 농가를 찾아 구슬땀을 흘렸다.

## 완주군 행정지원과 농촌 일손 돕기

### 고산 명석마을 양파 수확 도와

완주군 행정지원과(과장 김현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날 행정지원과 직원15명은 더운 날씨에도 고산면 명석마을 양파 농가를 찾아 선별 작업과 출하를 위한 망담기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농촌에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매년 농촌 일손 돕기를 군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를 통해 주민

들의 어려움을 알아가는 현장 소통정를 해나가고 있다.

이날 도움을 받은 이충노씨는 "내일 비가 온다고 소식에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군청 직원들이 이렇게 도와주어 일을 모두 마칠 수 있어 기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현순 행정지원과장은 "8월은 모내기과 양파 수확기 맞물려 일손을 구할 수 없어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오늘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자식처럼 키운 양파를 제 값 받고 팔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지역주민 안전 '우리 손으로'

### 무주군, 자율방재단 교육 실시

무주군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이 15일 무주를 전문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교육에는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수난구조대와 전문구조반, 재난구조대, 읍면 지역자율방재단 등 1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한국방재협회 공강주 강사로부터 최근 재난 발생 유형별 대응요령과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공강주 강사는 긴급구호 및 응급구조 과정에서의 역할과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비상연락체계 구축과 재해구호활동 배부, 임시 주거시설 점검 등 자율방재단원의 임무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외에도 평상시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황 군수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일인지를 이번 교육을 통해 다시 한 번 느끼게 되기를 바란다"며 "재난재해로부터 지역을 지키고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이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 2017 무주 WTP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 무주를 지키는 원동력이 될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군에서는 연 2회 8시간 이상의 교육을 통해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과 임무, 활동요령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무주군 자율방재단(단장 이종배)은 6개 읍면 총 246명으로 재해예방과 대응 복구 활동에 참여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완주군 자동차세 70억원 초과 전망

### 전년비 9% 증가

완주군의 차량 등록대수가 늘어나면서, 올해 자동차세 징수액이 7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5일 완주군은 2016년 6월 정기간 자동차세로 3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3억 원보다 9%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자동차 등록일부상 6월 1일 현재 소유 차량과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 등인데, 건수로는 4만2277대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부과액이 늘어난 데에는 완주군의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귀농귀촌 활성화 등의 인구유입 정책에 따른 차량등록대수 증가 효과로 분석

되고 있다.

완주군의 차량등록대수는 올해 4월 말 5만대를 돌파한 이후 5월말 현재 5만223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규모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에 이어 도내 5번째고, 시(市)단위인 남원보다 1만1천여대, 김제보다 7천여대 많은 수치다.

이에 따라 올해 결산 자동차세(징수 자동차세)는 지난해 67억원보다 다소 늘어나, 7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완주군은 앞으로 현수막 교체, 아파트 단지 안내방송, 읍면 이장회의시 납부 안내 등 자동차세의 납기 내 징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 장수군 육십령권역센터 개소

장수군 육십령권역추진위원회는 15일 오전 11시 장계면 명덕리 일원에서 육십령권역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엔 김윤섭 장수부군수를 비롯해 오재만 군의회의장 등 관계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개소식을 축하했다.

육십령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9년 공모사업에 확정돼 2011년~15년 사업기간동안 장계면 명덕리 일대에 국비 3,430백만원, 도비 343백만원, 군비 1,127백만원으로 총 4,900백만원을 투자해 권역센터, 숲 휴양공간조성, 마을회관 및 쉼터정비, 농산물체협장조성,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정주

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도모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특히, 권역센터는 권역의 중심적 공간으로서 주민들의 소통 공간 및 복지 관공객들에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내 대표적 인동교류의 장소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 거점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윤섭 부군수는 "권역추진을 성실히 수행한 한규병 위원장 이하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앞으로도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장수' 건설에 아낌없는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협조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국립돌리사

### 장수 청소년통합지원연합 찾아가는 아웃리치 실시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4일 장수 관내에 위치한 장계초등학교, 장계중학교에서 위기(기능)청소년 발굴 및 위기청소년 연계·지원을 위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연합 아웃리치를 실시했다.

'아웃 리치(Outreach)'란 가출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가정 복귀를 돕거나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빠져들지 않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다.

이번 아웃리치는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장수교육지원청이 연계하여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홍보물 등을 배부하였으며, 청소년전화 1388의 이용방법을 적극 알리고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참여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내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지역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웃리치활동 및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위기(기능)청소년들이 조기에 가정과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 추동마을, 귀농귀촌 우수 선정

진안군 동향면 추동마을이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주관한 2016년도 귀농귀촌 공동체 우수마을 경진대회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었다.

초고령화, 과소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력난 해소 및 인구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인 귀농귀촌인 유치 동기부여 및 동참 기회 제공을 위하여 추진한 이번 행사에 총 9개 시군에서 12개 마을이 참여하여 정문 심사단의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어 오는 7월에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는 전북도 귀농귀촌 박람회장에서 수상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방과 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수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5월 9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여 동화로 만나는 엄마나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 초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엄마나라 동화책과 연계한 공예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엄마나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다문화 감수성을 향상하고자 진행하게 되었다.

동화로 만나는 엄마나라 프로그램은 엄마나라 동화를 읽고 책 만들기, 동화 감상발표 및 여러 가지 미술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엄마나라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프로그램 기간은 5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4회기로 매주 월요일, 금요일 16시부터 18시까지 진행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완주 요양병원도 · 군 합동점검

완주군은 요양병원의 재난예방을 위한 민간에합단의 합동 활동에 나섰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약 20여명의 완주군 민간에합단과 전북도 사회재난과장 및 김대규 완주군 부군수가 함께했다.

완주군 재난예방 민간에합단(단장 김영옥)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로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발견해 신고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이다.

간담회를 통해 예찰단 홍보 동영상 시청 및 예찰단의 구체적인 역할과 세부적인 활동계획 등에 대해 토의하고 단원들의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간단하고 편리하게 신고에 활용하는 방법을 직접 실습해 보기도 했다.

이러진 요양병원 예찰활동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분야별로 신속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